

# 인식적 내·외재론 논쟁과 규범성의 문제

-골드만(Alvin I. Goldman)을 중심으로-

홍병선 (중앙대 교양학부)

주제분  
류

영미철학, 인식론

주  
요  
어

내재론, 외재론, 규범성, 골드만, 인식정당화, 신빙성

요  
약  
문

이 논문이 목적은 인식적 비난과 관련하여 인식적 내·외재론이 서로 견해를 달리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재론에서는 적용되는 반면 외재론에서 그렇지 않은 것이 결국 규범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외재론은 일반적으로 인식적 판단에서 규범성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내재론과 구분된다. 인식적 평가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믿음이 인식론적으로 합리적인가 혹은 비합리적인가와 관련된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에 대해 그 어떠한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 신빙성 여부를 가지고서 그 믿음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를 가릴 수는 없다. 이러한 외재론의 기본적인 입장을 추종하는 골드만의 신빙론에서 한 믿음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사실과의 연관성이 인식 정당화를 위한 인식적 규범성의 조건으로 제시될 수 없다는 점이다.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규범적인 판단에 해당하며 사실적인 기술과는 구분된다. 내재론의 관점에서는 어떤 인식 주체를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규범성과 관련하여 골드만의 경우 그가 설정하고 있는 '인식적 개념'의 분석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식적 개념에 대한 그의 외재론적 분석은 인식적 비난의 본성에 관련하여 분명히 오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식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은 '인식적 평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과 관련해서는 결코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은 그와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골드만이 후기에 제시하고 있는 인식 정당화에 관한 테제에서도 일종에 '규칙'과 같은 개념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의 규칙 개념이 인식적 규범성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1. 들어가는 말

현대인식론에서 인식정당화를 둘러싼 내재론internalism과 외재론externalism간의 갈등이 그 어떠한 논의보다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기에 그 긴장감이 오히려 우리의 관심을 끌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지루하다 못해 이제는 식상해 하는 것 같다. 언뜻 생각하기에 토대론, 정합론, 신빙주의, 증거론 등 다른 대안적 논의를 통해 충분히 인식정당화에 관한 논의가 가능하리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비켜나가기 어려운 것은 제시된 각각의 대안적 이론이 궁극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문제 또한 이러한 양자의 대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인식정당화론의 목표가 진리-공헌적 truth-conducive이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있다기보다는 서로가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기에 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쌍방간의 공방에서 비롯된다.<sup>1)</sup> 특히 전통적 견해로 여겨지는 내재론에 대해 외재론이 취하는 공격이 전반적인 논의의 수위를 규정지을 정도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내재론에서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가 인지자 자신의 반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accessible on reflection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점을 반영한다. 그것은 곧 한 믿음의 정당화 여부는 인식주체의 정신에 내적인 것internal to the subject's mind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sup>2)</sup> 이에 반해 외재론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골드만의 신빙론에서는 믿음-산출 과정의 신빙성reliability of belief-producing processes만이 정당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의 신빙성은 나의 반성을 통한 내적 접근과는 무관한 것이다.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근거가 사실적으로 개연적인 경우에만 적합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는 반성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 아닌 외적인 요인external factor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sup>3)</sup> 외재론이 현대 인식론 전면에 그 모습이 드러난 것은 게티어E.

1) 대부분의 현대 인식론자들이 우리의 믿음이 지향하는 목표는 실재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참을 극대화하고 거짓을 극소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레러 역시 인식적 정당성이 참인 믿음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진리-공헌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곧 인식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이 참이어야 할 것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된다. Lehrer(1990), 55-6쪽 참조. 특히 알스톤(W. Alston)의 경우 내재론적 정당화를 의무론적 정당화로 분석하면서, 의무론적 인식정당성 개념이 갖는 가장 심각한 결함으로, 이 개념에 따른 경우 적합한 진리-공헌적 근거와 올바른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그의 적합성 원리(adequacy principle)를 내세워 그 대안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내재론-의무론적 정당화라는 구도로 규정하고 이는 결코 진리-공헌적일 수 없다는 반론과 그 대안의 모색으로 이어지게 된다. W. Alston(1989), 95쪽 이하. 이는 인식 정당화론의 목표 둘러싸고 전개되는 내/외재론 간의 대립 양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2) 내재론은 인식 정당화의 속성을 S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한 측면에 호소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식주체가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은 바로 자신의 내적 상태밖에 없으며 이것은 S가 p에 대해 알고 있거나 그에 대한 정당화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내재론에서는 S가 어떤 '내재적 상태'에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한다. Chisholm(1989), 76쪽, 이에 관한 몇몇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 다른 믿음 이외의 어떠한 것도 한 믿음을 지니는 데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우리의 믿음들을 테스트하거나 그것과 비교하는 데 적용하기 위해 ... 우리 믿음 외부의 어떤 것을 ... 찾는 것은 불합리하다.” Davidson, D.(1983), 423-431쪽. “우리가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관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 정당화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게다가 정합 이외의 평가 기준을 찾기 위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어 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우리는 지식을 명제들의 관계로 생각하고, 정당화를 한 명제와 그 명제를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다른 명제들 사이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 혹은 지식과 정당화를 그 명제들의 대상들에 대한 특권적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다. ...” Rorty, R.(1979), 178쪽.

3) 골드만 Goldman(1979)에서 인식적 정당화에 관한 그의 초기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론은 인식적 외재론의 유형 가운데 하나인 신빙주의로 알려져 있다. 그 글에서 그는 인식적 정당화에 대한 일종의 재귀적recursive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그의 재귀적 정의에 의하면, 한 믿음이 정당화되는 것은 오직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한한다. 하나는 조건 없이unconditionally 혹은 이미 정당화된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신빙성 있는 믿음-독립independent 과정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이미 정당화된 믿음을 투입input하여 그것에 의존하여 신빙성 있는 믿음-의존dependent 과정으로부터 형성되는 경우이다. Goldman(1979), 1-23쪽. 골드만의 인식론적 입장은 Goldman(1986)에

Gettier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믿음과 사실과의 괴리라는 반론에서 비롯된다.<sup>4)</sup> 이에 따르면 이 세계에 대한 거짓이 아닌 참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식을 형성하기 위한 일차적인 조건이라고 했을 때, 내재론은 한 믿음이 우연적으로 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응수가 만만치 않은 것은 외재론을 오히려 극단으로 치닫게 하거나 인식정당화에 대한 성격 규정을 달리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필시 내재론에서 포기할 수 없는 본질적인 측면이 있기에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골드만 Alvin I. Goldman을 꼽을 수 있는데, 그의 견해에서 전기와 후기의 입장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도 이러한 공방의 산물이자 인식정당화론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규범성 normativity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골드만의 전회가 그토록 규범성을 떨치기 어려웠던 이유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본 논의에서 주목하는 것도 골드만의 입장 전회가 규범성과 연관하여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정당화론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재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의 정당화론이 갖는 허와 실에 대한 진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골드만의 외재론적 전략과 그 전략상의 문제

인식정당화에 대한 외재론적 설명이 갖는 이점이라고 한다면, 게티어의 반례에 대한 보다 즉각적인 해결책의 마련과 전통적인 인식론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강한 의미의 토대론과 정당화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외재론의 틀 내에서 한 믿음이 지식이 되는 것은 사실과의 법칙적 관계를 통해 확보되기 때문에, 특권화된 자기-정당성을 갖는 믿음을 불필요하게 설정하거나 믿음의 ‘인식정당화’라는 개념에 굳이 집착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서 참인 믿음을 지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그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믿음이 세계와 연관되는 방식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컴퓨터를 본다는 사실이 내가 그 컴퓨터를 보고 있다는 믿음의 원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컴퓨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컴퓨터에 대한 믿음의 정당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있다는 사실과 관계되는 방식이다. 외재론에서 지식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이처럼 그 믿음이 어떻게 발생되는가에 있지, 그 믿음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가<sup>5)</sup>에 있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경험으로부터 야기된 참인 믿음은 그것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인해 지식이 된다. 이처럼 외재론적 분석에 따른 지식은 ‘한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되는가’에 대한 답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떻게 발생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에 있기 때문에, 한 믿음과 그 믿음의 참임을 연결시키는 어떤 과정이나 관계가 인지자의 의식적 접근과는 무관하게 사실에 입각한 관계가 되며 그러한 관계로 인해 믿음이 곧 지식이 된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외재론적 견해를 대표하는 골드만이 취하는 전략 역시 지식을 산출하는 것은 믿음과 그 믿음을 참인 것으로 만드는 것간의 어떤 관계 혹은 연관성에서 찾는다. 이러한 관계를 그는

서 보다 정교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전형적인 신빙주의에서 다소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는 그 글에서 정당화가 정상적인 세계에서 신빙성의 함수라고 말하고 있는 때, 그 말은 믿음이 정상적인 세계에서 그 세계에 관한 믿음에 의거해서 정당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정당화가 (실제로) 신빙성 있게 산출된 믿음을 함축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고 있다.

4) 이는 게티어의 문제가 갖는 현대적 의의에 관한 것으로 홍병선(2002a)을 참조 바람.

5) 골드만은 이를 ‘당면 시간 이론(theory of current time slice)’이라고 부르는데, 그에 의하면 한 믿음의 정당화 지위란 특정한 시점에서 그 인지자에 대한 참인 믿음과의 함수로 파악된다. Goldman(1979), 14쪽 참조.

‘법칙적인 관계’로 분석하기도 하고, ‘반사실적인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골드만의 입장을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R1) 시간  $t$ 에  $S$ 가  $p$ 를 믿는 것이 신빙성 있는 믿음-형성 과정에 의해 산출되는 경우에 한해, 시간  $t$ 에서  $p$ 에 대한  $S$ 의 믿음은 정당화된다.<sup>6)</sup>

여기에서 정당화된 믿음이란 신빙성 있게 산출된 믿음-형성 과정의 결과이어야 한다는 골격을 갖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식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믿음-형성 과정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은 그 과정에 의거할 때, 거짓인 믿음보다 참인 믿음을 더 많이 산출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골드만의 인식 정당화에 대한 분석에서 '적절한 인과적 뒷받침 관계'와 같은 외재적 요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그러나 '신빙성 있는 믿음-형성 과정'을 통해 어떻게 정당화를 산출되는지에 관한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타당성을 지닌 정당화 이론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에 관해 골드만은 일단 신빙성 있는 믿음 형성 과정이란 '적절한 입력 조건adequate input-condition' 하에서 거짓인 믿음에 비해 참인 믿음을 더 많이 산출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골드만의 수정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R2) 믿음-형성 과정  $p$ 는 '적절한 입력조건  $I$ '에서 거짓인 믿음보다 참인 믿음을 더 많이 산출하는 성향propensity이 있을 경우 또 오직 그 경우에 한해  $p$ 는 신빙성이 있다.<sup>7)</sup>

그러나 제시된 논제 역시 다음과 같은 물음에 또 다시 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즉, 어떤 사람이 믿음을 형성했을 때, 그러한 믿음을 형성한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정당화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신빙성이란 믿음-형성 과정의 유형type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다. 즉 어떤 유형의 믿음-형성 과정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다른 유형의 믿음-형성 과정은 신빙성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가 성립한다. 그 말은 전자의 유형에 속하는 모든 믿음-형성 과정의 사례token는 신빙성이 있는 데 반해, 후자의 유형에 해당하는 믿음-형성 과정의 사례는 모두 신빙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두 유형에 동시에 속하는 믿음-형성 과정의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일반성 문제'라고 하는데 이처럼 하나의 믿음-형성 과정의 사례가 신빙성이 다른 믿음 형성 과정의 유형의 예가 된다면, 그 사례에 대해 일정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어떤 경우에 정당화되고 또 어떤 경우에 정당화되지 않는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논점을 반영한다.<sup>8)</sup>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한 골드만은 위와 같은 비판에 응수하는 가운데 앞선 자신의 논제를 부분적으로 손질하여 다시 재정식화시키고 있다.

6) Goldman(1979), 182쪽.

7) Goldman(1986), 63쪽.

8) 이러한 일반성 문제는 특히 내재론자들이 외재론을 비판하기 위해 자주 제기되는 논변으로 Feldman(1985), 166-7쪽, Plantinga(1988), 24-30쪽을 참조 바람.

- (R3) “시점 t에서 인지자의 믿음 p에 대한 다음 경우 또 오직 다음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 즉 그 인지자의 의견적 상태(doxastic states)로 이루어진 어떤 배열이 존재하되 그 배열(sequence)을 이루는 각 항은 어떤 (단일한) 올바른 정당화 규칙 체계(right J-rule system)에 의해 다음 항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또한 문제의 인지자의 믿음 p는 그 배열에서 제일 마지막 항을 이룬다”<sup>9)</sup>

정당화에 관한 위의 정의에 등장하는 ‘정당화 규칙 체계의 올바름’에 대해 또 다시 골드만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R4) “정당화 규칙 체계 R은 다음 경우 또 오직 다음 경우에 한해 옳다. 즉, R은 어떤 (기본적인) 심리적 과정을 허용하는 바, 실제로 이 과정에 따라 믿음을 형성하면 참인 비율이 어떤 구체적으로 높은 (0.5보다는 큰) 한계치를 넘는 결과가 야기된다.”<sup>10)</sup>

앞에서의 경우(R1, R2), 한 믿음이 정당화되는 것은 신빙성 있는 믿음-산출 과정이나 메커니즘에 의해 산출되는 경우이다. 이에 반해 나중에는(R3, R4) 믿음의 형성이 ‘어떤 정당화 규칙에 의해 허용된 과정’을 만족시키면 정당화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떤 정당화 규칙에 의해 허용된 과정’을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 있는 믿음-형성 과정에 의해 산출된 정당화된 믿음의 경우 이미 소유하고 있는 다른 근거에 의해 논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이 다른 근거에 의해 논박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 조건은 그 믿음의 배경이 되는 정보와 서로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함축한다.

그렇지만 그에게서 정당화의 원천은 여전히 신빙성 있는 믿음-형성 과정, 말하자면 그 믿음의 역사에 비추어 참인 믿음을 산출하는 빈도수가 높다는 사실에 있다. 골드만은 암스트롱 Armstrong, D.이나 노직 Nozick, R., 드레츠키 Dretske, F.와 같이 정당화가 지식의 조건이라는 점을 거부하는 노선을 걷고 있지는 않다. 정당화라는 조건은 그대로 살리고 있으면서 ‘규칙rule’이라는 개념의 도입을 통해 그의 독특한 입장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반론을 의식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외재론적 기초를 유지함으로써 진리를 담지해 내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되었든 골드만이 외재론 일반에 대해 제기되는 반론, 즉 자신이 믿음을 산출하는 과정의 신빙성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 그 믿음을 논박하는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믿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에 여전히 걸려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은 그러한 반론에 대해 적절한 응수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1)</sup>

9) Goldman(1986), 83쪽.

10) Goldman(1986), 106쪽.

11) 외재론에 대한 반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중 스트라우드에 의하면 “...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기 위해 지식 이론에 의존하려면, 우리는 그 지식 이론을 받아들일 어떤 이유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외재론’의 그 어떠한 형식도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Stroud, B.(1989), 43쪽. 또한 그는 “만약 우리의 목표가 다름 아닌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우리의 과학적 지식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오직 자신이 그 영역에 대한 어떤 지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하면 그런 지식에 대한 설명력을 가질 것이고, 타인에 대한 탐구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누군가가 타인들이 세계에 대해 아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아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단지 세계에 대해 그가 아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임의의 사람과 임의의 것들에 대해 그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묻는다면, 그가 그에 대한 설명을 위해 그가 세계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그 자신이 어떻게 아는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할 경우, 그는 그 지식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 참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 안다거나 그것을 믿을 어떤 이유를 자신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책 45쪽.

신빙성 있는 믿음 형성 과정에 대한 인식적 접근의 필요성에 입각한 내재론자들의 비판에 대해 외재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내재론자와 외재론자는 지식의 본성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응수할 수 있다. 또한 외재론자들은 인식론의 목표인 진리에의 추구를 감안했을 때, 내재론과 외재론 가운데 어느 입장이 진리의 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라고 물을 수 있다. 이러한 외재론자들의 답변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당화론의 차별성을 인정하자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차별성은 오로지 진리에의 추구라는 인식론의 목표와 연관시키고자 할 것이다. 내재론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수용된 정보가 신빙성 있는 정보인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가 요구되며, 그러한 정보를 결여하게 될 경우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게 될 터인데 외재론자들로서는 이러한 내재론자의 비판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이다.

### 3. 외재론과 규범성의 문제

외재론은 일반적으로 인식적 판단(epistemic judgments)에서 규범성(normativity)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내재론과 구분된다. 인식적 칭찬(praise)과 비난(blame)과 같은 평가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믿음이 인식론적으로 합리적인가 혹은 비합리적인가와 관련된 것인데, 실제로 믿음에 대해 어떠한 접근(access)도 갖지 않는 신빙성 여부를 가지고는 그 믿음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의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 이것이 신빙론에 제기되는 주요 비판 가운데 하나이다.<sup>12)</sup> 외재론의 기본적인 입장을 추종하는 골드만에겐 있어서도 한 믿음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fact)’이다. 이 말은 그 어떠한 인식적 평가도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 믿음의 정당화가 사실에 바탕을 둔다는 것은 또한 그 사실에 따라 ‘정당화 부여의 속성’<sup>13)</sup>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나의 믿음이 신빙성 없는 과정에 의해 산출되고, 내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식도 없을 때, 그 믿음을 갖는 데 대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다. 이 물음은 사실과의 연관성이 인식 정당화를 위한 인식적 규범성의 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느냐에 관한 물음일 것이다.<sup>14)</sup> 이것을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생각해 보자.

인식 체계가 동일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데카르트가 말하는 악마의 세계에,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정상적인 세계에 거주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그 위치를 일시에 뒤바꿔 놓는다

12) Fumerton(1988), 451쪽.

13) ‘정당화 부여 속성’은 인식정당화의 본성과 관련된 것으로, 논제 (J) “S의 믿음 p가 속성(features) F1, F2, F3, ... 을 갖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 한해, p는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를 만족하는 속성 F들을 찾는 일에 해당한다. (J)는 S의 믿음 p가 어떤 특정한 속성 F들을 갖는다면 정당화됨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F들 각각은 정당화된 믿음이 되기 위한 속성이 된다. 그러한 속성에는 각각 내적 속성(internal feature)과 외적(external) 속성이 있다.

14) 한 믿음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묻는 것은 그것을 믿어도 좋은가에 관한 물음이다. 그렇다면 인식적 정당화는 “인식적 허용가능성(epistemic permissibility)”의 문제일 것이다. 이는 곧 인식적 정당화가 규범적 특성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범은 여러 다양한 종류의 규범적 판단들이 옳을 수 있는 조건들과 관련된다. 인식적 규범 역시 다양한 종류의 믿음들을 받아들이도록 인식론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관한 규범들이다. 이에 따른 한 믿음의 정당성 확보는 올바른 인식 규범에 의해 허용되는 오직 그 경우만이다. 그래서 한 믿음의 정당화는 인지자가 그 믿음을 받아들일만한 이유를 통해 평가하게 되고, 그러한 평가를 위한 우리의 판단은 대부분 추론(reasoning)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인식 규범은 ‘올바른 추론’을 지배하는 규범이 될 것이다. 인식 규범은 그래서 추론과 그에 따른 믿음의 형성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러한 인식 규범의 성격에 비추어 볼 경우, 사실과의 연관성이 인식 정당화를 위한 인식적 규범성의 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Pollock(1987) 참조.

고 해도 이들은 그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재론자들은 악마의 세계에 거주하는 사람의 믿음은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 악마는 그가 실제로는 아무 것도 지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지각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짓인 감각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각에 관한 그의 믿음들은 사실상 전부 오류이므로 그 믿음들을 산출하는 과정 역시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헨(S. Cohen)은 이 경우 악마의 세계에 사는 사람도 그의 믿음을 갖는 일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가 관찰한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면밀하게 검토해보았는데도 아무런 오류도 찾아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가 믿는 일은 정당화된고 해야 할 것이다.<sup>15)</sup> 인식 정당화에 관한 코헨의 이러한 생각은 봉쥬르가 말하는 인식적 책임의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정당성이 규범적 개념으로서 인지자가 그의 인식적 목적을 어떻게 잘 추구해 왔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악마의 세계와 정상적인 세계에 속하는 두 사람의 믿음이 신빙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악마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정상 세계에 속하는 사람에 비해 인식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할만한 이유가 없다.<sup>16)</sup>

우리의 믿음이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비난받는 것은 자연스럽다.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규범적인 판단에 해당하며 사실적인 기술과는 구분된다. 내재론의 관점에서는 어떤 인식 주체를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정당화 조건에 대해 인식 주체가 얼마든지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당화를 확보하기 위해 그 조건에 접근할 것을 내재론에서는 마땅히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 조건에 접근하지 않은 채 어떤 믿음을 지녔다고 한다면 그에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이 돌아갈 터인데, 그 말은 그가 그러한 믿음을 지님에 있어 정당화 조건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sup>17)</sup> 그러나 외재론에서도 이처럼 규범성을 허용할 여지가 있는가? 규범성과 관련하여 볼 때, 골드만의 경우 그가 설정하고 있는 ‘인식적 개념’의 분석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식적 개념에 관한 그의 외재론적 분석은 인식적 비난의 본성에 관해 분명히 오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식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은 ‘인식적 평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과 관련해서는 결코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은 그와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골드만은 그의 전기 입장은 말할 것도 없고, 후기에 제시하고 있는 인식 정당화에 관한 테제에서도 일종에 ‘규칙’과 같은 개념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의 규칙 개념이 인식적 규범성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골드만이 제시하는 규칙 개념이 이러한 규범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식정당화에 관한 그의 명제에 의하면 “t에서 p에 대한 S의 믿음이 올바른 정당화 규칙J-rule 체계에 의해서 허용되는 경우 또 오직 그 경우에 한해 시점 t에서 S가 p를 믿는 것이 정당화된다”<sup>18)</sup>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믿음이 정당화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올바른 규칙 체계에 의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골드만의 명제는 정당화를 올바른 정당화 규칙과 그 규칙에 의한 허용permission에 의해 정의하고

15) Cohen(1983), 281쪽.

16) Lehrer & Cohen(1983), 192-3쪽 참조.

17) 이에 대해 스트라우드(Barry Stroud)에 따르면 “누군가가 안다고 했을 때 그가 아는 것을 그는 어떻게 아는가?”라는 물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그것을 믿을만한 이유를 소유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 자연주의자 혹은 외재론자의 경우 결국 막다른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Stroud(1989), 45쪽.

18) Goldman(1986), 59쪽.

있다. 여기서 ‘허용’은 명백히 규범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골드만이 지향하는 신빙론의 본래의 취지는 정당화를 규범적인 개념이 아닌 오직 사실적인 개념에 의거해서만 정의하자는 것이었다. ‘허용’과 같은 규범적인 용어의 개입은 신빙론에서 인식 정당화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인식적 평가의 대상이 사실적이라는 점과 서로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골드만에게 있어 그의 과제는 정당화 규칙 체계의 타당성 기준을 모색하는 데 있으며, 올바른 정당화 규칙의 기준을 비규범적인 용어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인 용어로 그 기준을 서술해야 하며, 정당화 규칙이 규제적인 원리라기보다는 ‘한 믿음의 정당화 여부를 판단하는 이론적인 평가 도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19)</sup> 그는 이에 관한 대표적인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하는데<sup>20)</sup>, 이들은 그 기준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 낼 수 없다면, 자신의 입장을 윤리학의 이론에서의 ‘결과주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리학적 결과주의는 한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을 그 행위의 결과와의 함수로 파악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믿음의 인식 정당화 역시 인지 과정의 결과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 따라 좋은 결론이 나오는 데 따르는 평가이다. 즉, 규칙 체계가 올바른냐의 여부는 바로 그 체계를 따를 경우 좋은 결과가 산출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은 좋은 결과를 산출하는 최종적인 후보로 ‘진리-공헌적 결과주의’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리-공헌적 결과란 참인 것을 받아들이고 거짓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므로 정당화의 규칙이 올바른 규칙이 되기 위해서는 참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sup>21)</sup> 물론 참인 비율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규칙은 과정 허용process permission<sup>22)</sup>이라는 의미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골드만이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규칙이 의무나 책임과 같은 규제적인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에 따르면 ‘규칙에 의해 허용된 과정’이라는 의미를 한 믿음의 정당화 여부를 판단하는 이론적 평가 도구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사실적인 비규범적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골드만의 답변이 얼마든지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고 또한 그리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은, 그가 의미하고 있는 규범성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으로 보인다.

골드만의 입장이 지니고 있는 모호한 측면은, 아무리 사실적인 것의 도움에 힘입어 설정된 규범적 개념이라도 역시 규범적 개념임에 분명할 것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사실과 규범의 관계에 관한 문제와 각각이 수행하는 역할에 관한 문제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골드만에게 있어 ‘정당화’라고 하는 개념을 지식의 한 필요조건에 관한 명칭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서술적 혹은 자연주의적 의미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규범-평가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단지 명칭으로만 사용된 ‘정당화’의 개념일 것이고, 그 경우 다른 적절한 개념으로 대치 가능할 것이다. 만일 후자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규범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인식 주관의 개입과 무관한 방식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측면에

19) Goldman(1986), 63쪽.

20) “올바른 정당화 규칙들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진리에 의해 함축(entail)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준”, “정당화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회 구성원의 합의” 등을 제시하고 있다. Goldman(1986), 63-9쪽 참조.

21) Goldman(1986), 98-103쪽.

22) 골드만은 과정 허용에 대해, “그 어떠한 기준도 그것이 허용하는 규칙들이 특정한 유형의 인지 과정들을 허용하는 규칙이지 않는 한 성립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당화 규칙은 특정한 과정 유형들에 적용되는 규칙을 의미한다. 이 점은 일반성의 문제 또한 여전히 미해결로 남길 우려가 있다. Goldman(1986), 85쪽.

서 중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기도 하는데, 이에 관한 골드만의 답변은 그리 선명해 보이지 않는다.

골드만의 정당화 규칙의 개념은 인식적 비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까지도 적절하게 수용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그렇다면 골드만류의 외재론에서 비합리성에 대한 비판이 가능한 것은 ‘규범성의 기준’을 너무 확장해서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믿음에 대한 비합리성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 그릇된 이론, 너무 비싼 채소값, 들지 않는 면도날 등에 대해서도 비판하게 된다. 하지만, 잘못된 교육정책, 그릇된 이론, 비싼 채소값, 면도날의 무더짐에 관한 판단이 규범적인 판단에 관한 것인가? 아마도 면도날의 무더짐에 관한 판단은 일종에 면도날의 선함goodness에 관한 규범적인 판단에 속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면도날의 사용에 관한 한 그 목적의 달성과 관련하여 ‘무담’이라고 하는 것은 면도날을 쓸모 없게 하는 속성으로 여기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빙론에서 말하는 ‘규칙’이란 이와 같이 일종에 면도날의 무더짐에 관한 판단으로서의 규범성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이러한 식의 설명이 신빙론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 신빙론자들이 취하고 있는 노선, 혹은 전략이 이와 같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4. 외재론적 합리성의 문제

내재론이건 외재론이건 비합리성이 비판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다. 두 입장 모두 비합리성을 비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인식적 용어에 대한 의무론적 분석에 따라 ‘가치적 용어’를 사용하여 ‘인식적 개념’을 정의하는 것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인식적 용어에 대한 의무론적 분석이 적어도 내재론에는 적용될지 몰라도 외재론의 형태를 띤 견해와는 양립한다고 볼 수 없다.<sup>23)</sup> 즉, 두 입장이 비합리성에 대해 동일하게 비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을 뿐더러 이 점에서 각각 이론적 특징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견해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빙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비추어 항상 그의 믿음이 비합리적인 결과만을 산출한다고 했을 때, 이에 따라 그는 그의 믿음에 대해 그것이 왜 비합리적인지에 관한 이유를 갖지 못하고, 더 나아가 그 믿음에 대한 인과적 관계가 있는지조차 의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의 믿음은 인식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주장임에 다름 아니다.<sup>24)</sup> 그러한 식의 비판이라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갖는다고 해도 비판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의 경우 그가 갖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도 비난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비합리적인 믿음이 산출되기는

23) 그렇다고 내재론적 견해에 따른 인식적 개념에 대한 의무론적 분석이 전적으로 옹호되는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의 믿음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그가 그러한 믿음을 갖는 데 대해 반드시 도덕적인 비난가능성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도덕적 책임과 인식적 책임이 엄밀하게 말해서 구분된다는 차원에서는 인식적 개념에 대한 의무론적 분석에 대한 비난이 도덕적 비난이 될 수는 없다.

24) 이 말은 다음의 주장을 포함한다. 치즘에 따르면, “비록 당신이 갖고 있는 증거evidence가 아마도 당신이 곧 죽게 된다는 것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된다. 물론 그것이 당신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와 같은 전형적인 의무론적 분석에서의 “의무들 간에 상호 충돌하는 conflicting duties” 경우 이와 같은 반론을 면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외재론에서는 동일한 답변만으로 일관할 것이다.

했지만,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의 결과였으며 그가 가진 모든 잠재적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비합리적인 사람이 주장하는 믿음에 대해 윤리적으로 비난해서도 안되고 또한 비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외재론에 의하면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해야 한다. 비난의 본성의 비추어 볼 때 외재론에서 말하는 비합리성에 대한 비판이란 규범적인 것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외재론자가 특정한 조건하에 비합리적인 믿음이라고 그들의 특정한 논변을 통해 비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그럴듯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외재론이 태생적으로 짊어진 운명이라고 한다면 신빙성 있는 믿음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외재론이 갖는 가장 큰 취약점이자 그 성립 가능성조차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합리성(rationality)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합리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물음은 한 믿음이 정당화된다고 했을 때, 정당화의 조건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으며, 과연 외재론에서 내세우는 조건에 따라 그 정당화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sup>25)</sup> 간단히 말해 이 물음은 외재론적인 인식정당화의 개념도 과연 합리성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지자 S의 믿음이 골드만이 제시하고 있는 신빙성의 조건을 전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 혹은 합당한 근거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인지자 S가 그 믿음을 받아들임에 있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sup>26)</sup> 따라서 외재론의 틀 내에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을 덧붙이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자칫 외재론적 기초를 흔들여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한 믿음의 정당화가 인식 주관의 관점에 따라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했을 때, 한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외재론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인식적 합리성은 무엇인가? 외재론에 가해지는 이러한 비판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재론자들은 무엇보다도 인식 정당화에 필수적인 '인식 주관의 합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답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5) 많은 내재론자들이 이와 같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특히 봉쥬르와 폴리의 입장에 따랐다. Bonjour(1985), Foley(1985) 참조.

26) 퍼트남 역시 Putnam(1983)에서 규범성에 대한 철학적 위상에 관해 언급하면서 신빙론 등을 포함하는 인식론을 자연화하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 "만일 인식론적이든 형이상학적이든 그 어떠한 참인 개념도 제거된다면 우리의 모든 진술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규범성에 대한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있다. H. Putnam(1983), 246쪽.

## 참고문헌

- 홍병선(2002a), “인식론에서의 자연화, 그 철학적 함축”, 『과학철학』 제5권 1호.
- \_\_\_\_\_(2002b), “인식의무, 그 자연화 전략상의 문제”, 『칸트연구』, 제10집.
- \_\_\_\_\_(2004), “인식, 인식규범, 자연화”, 『범한철학』, 32집 봄호.
- Alston, W. P.(1985), “Concepts of Epistemic Justification”, *The Monist* 68, reprinted in *Epistemic Justification : Readings in Contemporary Epistemology*, Rowman & Littlefield: Loyola Univ. Press.
- \_\_\_\_\_(1988b), “An Internalist Externalism”, *Synthese* 74.
- \_\_\_\_\_(1989), “Internalism and Externalism in Epistemology”, *Philosophical Topics* 14.
- \_\_\_\_\_(1989), *Epistemic Justification : Essays in the Theory of Knowledge*(Ithaca, N. Y. Cornell Univ. Press)
- Armstrong, D. M.(1973), *Belief, truth and Knowledge*, Cambridge Univ. Press.
- Bonjour, L.(1985), *The Structure of Empirical Knowledge*,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 Chisholm, R. M.(1989), *Theory of Knowledge*,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ohen, S.(1984), “Justification and Truth”, *Philosophical Studies* 46.
- Conee, E.(1988), “The Basic Nature of Epistemic Justification”, *The Monist* 71, 3.
- Davison, D.(1983), “A Coherence Theory of Truth and Knowledge”, *Kant oder Hegel*(Dieter Heinrich), Stuttgart: : Klett-Cotta.
- Dretske, F.(1981), *Knowledge and the Flow of Information*, Cambridge: MIT Press.
- Feldman, R.(1993), “Epistemic Obligation,” in *Pojman*(ed).
- \_\_\_\_\_ & Conee, E.(1985), “Evidentialism”, *Philosophical Studies* 48.
- Fumerton, R.(1988), “The Internalism/Externalism Controversy”, *Philosophical Perspectives* 2, Epistemology.
- Goldman Alvin I.(1979), “What is Justified Belief”, in Paul K. Moser, ed., *Empirical Knowledge*, Rowman & Littlefield.
- \_\_\_\_\_(1980), “The Internalist Conception of Justification,”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Vol. 5.
- \_\_\_\_\_(1986), *Epistemology and Cognition*,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_\_\_\_\_(1992), “What is Justified Belief?”, in *Liasons*, Cambridge: MIT Press.
- \_\_\_\_\_(1993), *Philosophical Applications of Cognitive Science*, 제1장, Westview Press.
- Komblith H.(1983), “Justified Belief and Epistemologically Responsible Action”, *The Philosophical Review*, XCII, No.1, January.
- Lehrer, K.(1990), *Theory of Knowledge*, Boulder, Co : Westview Press.
- Nozick, R.(1981), *Philosophical Explanations*, 제3장,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Plantinga, A.(1990), “Justification in the 20th century”,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50.

- Pojman, Louis P.(1993), "Willing and the Ethics of Belief," in L. P. Pojman (ed) *The Theory of Knowledge: Classic & Contemporary Readings*(Belmont, Calif)
- Pollock, J. L.(1986), *Contemporary Theories of Knowledge*, Rowman & Littlefield Press.
- \_\_\_\_\_ (1987), "Epistemic Norms", *Synthese* 71.
- Putnam, H.(1983), "Why Reason Can't Be Naturalized?", in his *Realism and Reason: Philosophical Paper3*(Cambridge Univ. Press)
- Rorty, R.(1979),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 Press.
- Steup, M.(1988), "The Deontic Conception of Epistemic Justification," in *Philosophical Studies* 53.
- \_\_\_\_\_ (1996),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Epistemology*, Prentice-Hall.
- Stroud, B.(1989), "Understanding Human Knowledge in General", *Knowledge and Skepticism*(Marjorie Clay and Keith Lehrer), Boulder : Westview.
- Quine, W. V. O.(1969a), "Epistemology Naturalized",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New York: Columbia Univ. Press).

K C I

## **Debate of epistemic internalism/externalism and Problem of normativity**

Byung-Sun, Hong

The aim of this thesis, even though epistemic internalism and externalism do not differ from their opinion each other about a epistemic blame, does it show to be related normativity ultimately as what is applied to internalism but is not at externalism.

One of the more nebulous criteria for distinguishing internalist and externalist analyses involves the suggestion that externalists ignore the normativity of epistemic judgement. And, certainly, like many of the objections levelled at Alvin I. Goldman's realism, for example, makes the claim that unreliability to which one has no actual or potential access cannot decide questions about the rationality or irrationality of beliefs because charges of irrationality are relevant to evaluations of epistemic praise and blame. If my beliefs is produced by unreliable processes when there is in no possible way for me to find the fact out, in what sense am I to be blamed for having the belief? The inhabitants of demon worlds are no more blameworthy for their demon induced false beliefs than are the inhabitants of demon no non-demon worlds.

Surely both internalists and externalists will agree that in some sense, charges of irrationality can be construed as criticism. But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this virtual truism, a truism that is not going to differentiate the two views, from so-called deontic analyses of epistemic terms, where a deontic analyses of epistemic analyzes into the epistemic concepts using value terms. The deontic analyses of epistemic terms may well be incompatible with at least paradigm out of externalist views, but as an internalist, I certainly do not want to be struck with defending the deontic analyses of epistemic concepts.

I do not think it is useful to try to understand the internalism. externalism debate as one over the normativity of epistemic judgements. In fact, I would argue that pure denotic analyses of epistemic terms involve a mistake very much like the mistake of externalism.

Key Words      internalism, externalism, Alvin I. Goldman, normativity, epistemic justification, reliability